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

II.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의 한국선교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기독교회'(남대문통)의 출범과 J. 마이클 셸리 선교사



J.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선교사 가족
(1935.02.24). 한국기독교회 선교를 위해 자원한 선교사로서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도쿄 요츠야선교부의
후원자였고 실행위원의 한 사람이었다.

일제강점기 때 '그리스도(인)의교회'의 교단 명칭은 '기독교회'였다. 그리고 그 '기독교회'를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 소개한 주체(主體)는 도쿄 '요츠야선교부'였고, 그 중심에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소속의 윌리엄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 1864-1936) 선교사 부부가 있었다.

한국 땅에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착수된 해는 1924년이다. 그해 3월 25일 커닝햄 부부는 서울에 입국하여 선교기지를 세우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였고, 5월에 도쿄(東京) 제1교회 '기독교회'에 다니던 유학생 박제곤을 파송하였으며, 이후로 다수

의 인물들이 요츠야선교부에서 급여를 받고 '기독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였다. 그들은 장로교와 감리교 출신 몇 명을 빼고는 대부분이 성결교 출신이었다. 1932년 6월 11일 최초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라는 교단명칭을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신고)〈조선총독부관보 제1692호 6면(소화 7년 8월 26일)〉한 성낙소는 원래 구세군 사관이었다. 성낙소는 1919년 충북 영동지방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1920년 9월 25일 강제 포교폐지〈조선총독부관보 제2438호 02면(대정 9년 9월 25일)〉를 당한 그해 8월부터 1922년 3월까지 경성성서학원(성결교)에서 수학한바가 있다〈자서전('제1장 성낙소의 출생과 가정 및 교양')〉. 그 후 성낙소는 구세군에 백의종군하였다가 사관으로 복직되었으나 구세군을 떠난 후 '그리스도(인)의교회'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고향인 충남 부여군 화수리에서 1927년 1월 1일 자발적으로 '기독교회'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커닝햄 선교사의 초청을 받고 일본에 건너가 요코하마(横浜)조선인기독교회를 섬기던 중에〈자서전('제2장 자각적으로 신약교회의 명칭을 사용')〉조선기독교회 포교관리자로 파송을 받아 1931년 9월 중순경에 귀국하였다. 그 후 이인범 목사에 의해서 1936년 7월 8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교파명변경계가 제출〈조선총독부관보 제2883호 6면(소화 11년 8월 21일)〉되어 해방 때까지 지속되었다.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포교관리자들이었던 이인범(제1대)과 신신

근(제2대)도 성결교 출신이었다.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에 소속되었던 교회들은 오늘날 하나도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남아있지 않다. 남북분단이후 평안북도 구성군과 정주군에 세워졌던 기독교회들의 존폐 여부는 알려진 것이 없다. 1943년 5월 인천의 금곡동교회와 유동(화정)교회가 송현기독교회에 병합되었고, 이인범 목사를 이어 포교관리자가 된 신신근 목사가 별세한지 8일 만인 1946년 12월 10일 신신근이 시무했던 인천송현기독교회가 인천송현성결교회로 재건되었으며, 1945년 11월에 송현기독교회에서 분리된, 정삼선이 시무했던, 또 하나의 교회는 인천제일장로교회(통합)로 재건되었다. 나머지 교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한때 요츠야선교부에서 급여를 받고 사역했던 성낙소 목사(경성교회)와 김문화(장로교 출신, 돈암 제2교회) 목사가 30년대 말에, 이난기(감리교 출신, 용산교회) 목사와 윤낙영(성결교 출신, 아현동교회) 목사가 해방 후 존 T.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의 ‘기독교회선교부’(The Korean Christian Mission)에 합류하였다. 이난기 목사는 1948-49년 사이에 이미 68세였고, 윤낙영 목사는 1955년 7월 6일부터 1958년 전반기까지 영등포침례교회에서 목회하였다. 김문화 목사는 일제강점기 때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1949년 초에 별세하였다. 이로써 끝까지 살아남아 그리스도(인)의교회에서 사역을 이어간 인물은 1964년에 별세한 필운동그리스도의교회의 담임목사 성낙소(1890-1964) 뿐이었다.

커닝햄 선교사는 한국에 주재하되 필요한 선교비용을 알아서 조달할 수 있는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었다<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 이하 TC, 1933년 8월호). 이 모집에 지원한 인물이 J.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였다. 선교사에 지원할 당시 셸리는 요츠야선교부의 후원자였고 실행위원의 한 사람이었다. 셸리 가족은 1934년 1월 16일부터 한국에 입국할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셸리 가족은 이듬해인 1935년 2월 21일 미국을 떠나 3월 10일 일본에 도착하여 1주일간 요츠야선교부의 선교활동을 견학하였다. 셸리 가족은 3월 20일경 한국에 도착하여 24일 첫 주일 예배를 이인범 목사가 시무하던 제물포 제1교회(송현기독교회)에서 드렸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935년 4월



J. 마이클 셸리 선교사 가족 환영 기념 사진(1935년 3월 24일) 사진이 촬영된 곳은 인천송현기독교회로서 윌리엄 D. 커닝햄 선교사가 3개월 전에 토마스 헛치 선교사와 함께 방문했던 곳이다. 앞줄 중앙의 외국인 남성이 셸리이고, 우측이 딸 레이첼이며, 그 옆이 이인범 목사이다. 셸리 부인 옆은 공립교사 출신으로써 통역을 했던 김영배 집사이다.

25일 셸리는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동 5정목 115번지(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기독교회(基督敎會 南大門通)’ 포교관리자설치계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와는 별개로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526호 7면(소화 10년 6월 15일);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의 건-경기(국가기록원)>. 그리고 그것은 이인범 목사가 1936년 7월 8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교파명변경계를 제출<조

선총독부관보 제2883호 6면(소화 11년 8월 21일)에 한 것보다 무려 14개월 13일이나 빠른 것이었다. 여기서 ‘남대문통’(南大門通)이란 교단의 어떤 파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포교관리자사무소의 주소를 지칭한 것으로써 ‘남대문로(南大門路)’ 혹은 ‘남대문가(南大門街)’를 뜻한다.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당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도 ‘기독교회’(남대문통)가 새로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요츠야선교부는 재정적 곤란함을 겪고 있었다. 세계가 경제대공황을 겪고 있던 시기였으며 요츠야선교부는 산하의 모든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 선교부의 대표자인 커닝햄은 절대 빚을 져서는 안 된다는 기조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조선선교에 쓰이는 예산을 삭감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반면에 커닝햄은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의 급여를 깎아서 부족한 예산을 메우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다.



요츠야선교부의 선교사들
앞줄 좌측부터 슈노버(Ruth Schoonover), 커닝햄(W.D. Cunningham) 부부, 뻬햄(Farnham), 뒷줄 좌측부터 채이스(John T. Chase) 부부, 레몬(Vivian Lemmon).

첫째는 존 T. 채이스를 비롯한 여러 선교사들이 요츠야선교부를 떠난 것이었다. 커닝햄 선교사가 급여삭감을 항의한 채이스 선교사를 파면했기 때문이다. 커닝햄은 1934년 10월에 채이스를 자기 집으로 불렀고, 찾아온 채이스를 문밖에서 세워놓은 채로 파면을 선언하였다. 이에 항의하여 커닝햄의 다른 고용 선교사들인 비비안 레몬(Vivian Lemmon), 그레이스(Grace), 뻬햄(Farnham), 루스 슈노버(Ruth Schoonover)도 사임하였으며,

이들 중 채이스 가족을 뺀 나머지 대부분은 일본에서 독립 선교사로 활동을 다시 시작하였다. 이뿐 아니라, 10개 처의 일본인 교회들도 선교부와 단절을 선언하였다 <Mark Maxey, “Christians in Japan 100 Years (1883-1983),” www.bible101.org/japanmissions/page05.htm>.

둘째는 성낙소 목사가 요츠야선교부로부터 1933년 5월 20일 조선지역 포교관리자에서 부당하게 해임되고, 그 대신에 이인범 목사가 1933년 6월 5일 조선기독교회 포교관리자로 선임된 것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 성낙소는 자신의 <자서전(‘제5장 본국에 포교 임명’)>에서 “... 동경 심천교회(東京深川教會) 교역자 이인범(李寅範)이 고향인 황해도 곡산을 방문하는 중에 조선에 귀환하려던 전일에 욕망하였던 것을 재차 발전(發展)키 위하여 동경으로 가서 선교사에게 그럴듯한 모략을 하되, 성군이 본국에서 자기가 포교관리자가 되어 교파를 조직하였다고 보고 한즉 커닝햄 선교사가 즉시로 성에게 해직통고서를 발송한 후에 모략자가 후임 하였다.”고 적었다. 반면에 커닝햄은 <도교 그리스도인> 1933년 8월호 ‘한국을 위한 확대 프로그램’(Enlarged Program for Korea)에서 교단을 탈퇴한 수십여 개의 교파교회들 가운데 다수가 신약성경교회에 가입을 원하고 있고, 그들의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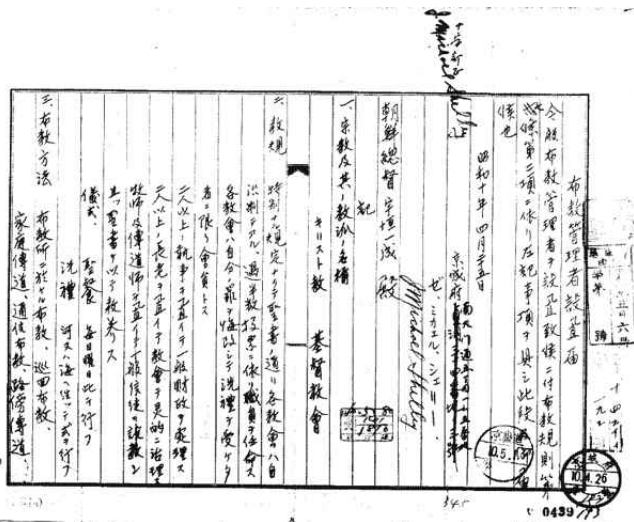
에 부응할 일군을 목회자들이 요청하고 있어서, 한국을 충분히 잘 알고, 복음을 충분히 잘 알며, 복음을 충분히 잘 전파할 인물이 이인범이어서 수도 서울에 강력한 교회를 세우도록 그를 한국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또 그보다 3개월 전 5월호 ‘이 목사의 두 번째 한국 조사’(Mr. Lee’s Second Survey in Korea)에서 많은 지역들에서 사람들이 “우리의 갈렙과 여호수아”인 이인범에게 더 머물면서 “신조는 오직 그리스도뿐인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more about the church that has no creed but Christ) 이야기를 들려줄 것을 바랐다고 적었다. 이로써 독자는 이인범 목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커닝햄에게 전도여행에 대한 보고를 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인범은 자신의 바람대로 동년(1933년) 9월에 시무하던 도쿄 후카가와(深川)조선기독교회를 사임하고 입국하여 기독교회 인천송현교회를 맡아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1936년 1월 10일이 되기까지 조선총독부의 비협조로 합법적인 포교관리자로 활동할 수가 없었다.

셋째는 커닝햄이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를 포용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커닝햄은 일본에 도착한 J. 마이클 셸리 가족을 도쿄에 묶어두고 싶어 했다. 다수의 선교사들이 선교부를 떠났기 때문에 커닝햄으로서는 떠나버린 선교사들이 맡았던 업무를 대신해줄 다른 선교사들이 몹시 필요했었다. 그러나 셸리는 도쿄에 머물러 달라는 커닝햄의 간청을 뿌리쳤다. 셸리는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게 약조(約條)한 본래의 목적대로 한국에서 사역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때 커닝햄이 취했어야 할 조치는 이인범을 대신해서 셸리를 조선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로 세웠어야 했다. 그러나 커닝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셸리가 한국에서 파악한 사실은 이인범이 조선총독부의 포교규칙을 어기고 불법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기독교회들에 미칠 나쁜 결과를 우려한 셸리는 이 사실을 커닝햄에게 즉시 알렸고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조선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커닝햄은 이 요청을 거절하였다. 커닝햄 선교사는 조선총독부의 포교규칙에 따른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었다. 게다가 커닝햄은 절친한 이웃이었던 조선총독부의 총독(1919-27, 1929-31)과 일본정부의 수상(1932-1934)을 지낸 사이토 마코토 자작으로부터 조선선교를 승인받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마코토의 승인은 구두에 불과하였지 포교규칙에 따른 문건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넷째는 ‘기독교회’(基督教會 南大門通)를 계출(신고)한 셸리는 그로부터 한 달 후인 5월 25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비정상적인 정황을 고발하는 서신을 작성하여 커닝햄 선교사 후원자들에게 발송하였다. 추정컨대 셸리가 취한 이 일련의 재빠른 행동들은 이인범도 커닝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사이토 마코토가 요츠야선교부에 조선포교를 허가하였으니, 조선선교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커닝햄은 그제야 사태파악에 나섰고, 서둘러 성낙소를 이인범으로 바꾸는 포교관리자변경계를 계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는 선결과제들을 제시하면서 신고서를 접수받지 않았다. 다급해진 커닝햄은 사이토 마코토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썼고 직접 만났으며, 수차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서신을 발송하였다. 결국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는 성낙소와 이인범을 1936년 1월 10일 소환하여 성낙소에게 포교관리자사직서를 쓰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이인범의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접수받았다. 만일 사이트의 강력한 지원이 없었다면, 만일 셸리 가족이 선교사역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다면, 만일 총독부가 성낙소 목사에게 사직서를 강제하지 않았다면, 사태의 심각성으로 볼 때,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요츠야선교부에 의한 조선선교는 1924년에 시작되었으나 교단명칭과 포교관리자를 반드시 등록하고 포교규칙에 따라 교단에서 발생하는 사사건건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1932년 6월 11일에 기독교회를 조선총독부에 등록시킨 인물은 성낙소였다. 요츠야선교부는 그때까지 무려 8년간을 마코토가 구두로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불법선교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J. 마이클 셸리(1890.06.07-?)가 1935년 4월 25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한 '포교관리자설치계.' 설치 주소가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동 5정목 115번지'로 되어 있다.

J. 마이클 셸리는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본적을 “아메리카 합중국 오리건 주 유진,” 이름을 “J. 미카엘(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생년월일을 “1890년 6월 7 일생”이라고 적었다. 또 학력을 “아메리카 합중국 오리건 주 유진대학 신학과 졸업,” 경력을 “아메리카 합중국 오리건 주 암힐(Yamhill) 시 기독교회 감독목사 임명”이라고 기재하였고, “금년 3월 조선선교사로 임명파송”이라고 적었다. 함께 제출된 안수증서를 보면, 셸리는 1923년 8월 12일 오리건 주 암힐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것은 그가 한국에 선교사로 왔을 당시 미국에서 12년 이상 목회한 경력을 가진 만 45세의 중년이었던 것을 말해준다.

셸리는 1935년 4월 25일 제출한 포교관리자설치계 원서에서 주소를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동 5정목 115번지”로 적었고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제1항 종교 및 기타 교과 명칭: キリスト教(크리스토토교) 기독교회.
- 제2항 교규(教規): 특별한 규정없이 성서를 통해 각 교회가 자치제로 과반수 투표로 직원을 임명. 각 교회는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에 한하여 회원으로 인정. 2인 이상의 집사를 두어 일반재정을 정리. 2인 이상의 장로를 두어 교회의 영적 치리를 맡김. 목사 및 전도사를 두어 일반 신도에게 설교 및 성서적으로 권면. 의식에 있어서는 성찬을 매일요일마다 행하며, 세례는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행함.
- 제3항 포교방법: 포교소에서 포교, 순회포교, 가정전도, 통신포교, 노방전도.
- 제4항 포교관리자의 권한: 기독교회의 대표, 포교사무 총괄, 교직 신분 진퇴(進退) 및 상벌.
- 제5항 포교자 감독방법: 관리자가 각 교회를 방문하거나 통신을 통해서 감독 지도.
- 제6항 포교관리사무소위치: 경성부 남대문동 세브란스병원구내.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701-2 PEOPLE'S BANK BUILDING
 FOURTH AND ELM STREETS
 CINCINNATI

LEON L. MYERS
 PRESIDENT
 D. A. TRIVALE
 VICE PRESIDENT
 L. L. JAMES
 SECRETARY
 J. R. D. MATTHEWS
 TREASURER
 PAUL H. RECORDS
 JAMES DEFOREST MURCH
 W. M. WARLEN
 L. L. HUNTER
 J. E. DE GAFFERLY
 R. E. ELMORE

ADVISORY BOARD
 A. E. THURPT
 CHAIRMAN
 WYRON CARROLL
 GEORGE L. BECKER
 A. B. CRUICK
 D. H. BRIDLEY
 DR. J. H. WELLS
 JAS. E. HUBERT
 EARL CHILDERS

OFFICIAL ORGAN
 OF THE RESTORATION HERALD

11/7/1936

Governor General, Korea.
 Seoul, Korea.
 Most honored sir,-

If I have not addressed you of your proper title or in the manner which is proper will you please forgive me. I do not know the forms proper for your office and country. This letter is written to get official information as to certain points regarding our missionary work in your country. Conflicting reports continue to reach our office. The information that we need regards matters of fact and which ought to be a matter of record in your files. I enclose a circular letter which includes the matters about which we receive conflicting statements.

Briefly and to the point what we want to know from your office is:

1. Is W.D. Cunningham doing missionary work with the legal permission of the Korean Government in Korea as claimed in No. 1. of the enclosed circular letter?

2. Does W.D. Cunningham have twelve churches in Korea, operating with the legal consent and knowledge of the Korean Government as set forth in No. 2. of the enclosed circular letter.

This letter is not an effort to gather information that these twelve churches are actually operating in Korea under the approval of your honored Government we shall be most happy to learn from your office confirmation of such facts. We are friends of W.D. Cunningham and desire to learn the truth from official sources to sustain us in our confidence in him in the face of conflicting statements about his work.

We enclose stamps for reply and hope for an early answer to our questions. We will gladly pay whatever incidental expenses may accrue in securing this information.

Yours in Christ,
 Leon L. Myers
 PRESIDENT
 1453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가 1936년 7월 10일 접수한 '그리스도인 환원연합회' 회장 Leon L. Myers의 절의서. 이 절의서에 대한 회신이 1936년 7월 29일 학무국장 명의로 '그리스도인 환원연합회' 회장에게 발송되었다.

여자들 가운데 세 명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이었고, 북한지역에서 약 2개월간 사역한 것이었다. 쉘리 가족은 한국에 도착한 이후 열정적으로 선교를 시작하였지만, 세 가지 중대한 이유로 한국 체류 7개월만인 1935년 10월 28일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첫째 이유는

제7항 포교관리자서명: J. 마이클 쉘리(J. Michael Shelly).

그리스도(인)의교회에는 본래부터 감독자가 없었으나 일제의 통제아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성낙소, 쉘리, 이인범, 채이스의 포교관리자설치계 또는 포교관리자변경계에 담긴 내용들은 상기한 것과 거의 동일하다.

1924년 이후 1935년까지 요즈야선교부의 선교사들인 커닝햄 부부가 수차례 또 존 채이스가 한 차례 조선기독교교회들의 현황파악을 위해서 방문한 바가 있었어도 순수하게 조선기독교회 곧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만을 위해서 입국한 선교사는 J. 마이클 쉘리 가족이 최초였다. 그의 가족이 한국에서 행한 일은 '기독교회'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한 것과 서울에 성경공부반을 개설하여 참

Vidu, Jregon
 Jan. 23, 1963

Mr. Harold Taylor
 Seoul, Korea.

Dear brother in Christ:

Your letter, written to my son, Jean, was forwarded to me about Christmas. I was so busy then that I did not feel that I could do the letter justice for a few days, so I laid it aside, and in so doing mama mislaid it. I did not find it again until today. I hope you will pardon this delay.

Yes, we were the first of the Church of Christ missionaries to go to Korea. As it turned out we found a very sorry condition in the mission work there, owing to dishonest and unchristian practices which had been allowed under the Cunningham leadership, from Tokyo. I cannot see that any good would come of my going into that now, but that was one of the major factors in our decision to return home, coupled with the very poor condition of the family health. We wanted if possible to straighten out the tangle.

We sailed from San Francisco in Feb. 1935 and returned to the States in November of that year. Our headquarters were in Seoul, altho we spent about two months in Northern Korea. We conducted a very fine Bible study class in Seoul, hoping to find so preacher material. Out of this class we baptized the men in the river outside of Seoul.

We spent some very strenuous days in gathering evidence in Seoul, and in Tokyo, and brought it in documented form to our people here. Because of this we were able to help lift the cloud that Cunningham had placed on the record of John Chase. We suggested that our rope-holder turn over our support to him and he returned later to Seoul to carry on the work.

We had raised our support independent of any other group. We spent more than a year here doing it.

I am enclosing a picture of a group to which I preached soon after we arrived in Seoul. The man seated on the right of Mrs. Shelley is a Mr. Kim, a talented and finely educated Christian who helped me some. He was a teacher in the Public schools there. To my left is our daughter Rachel, dead now, and beyond her, a Mrs. P. Lee, who was a preacher in the Yotsuya Mission under Mr. Cunningham. The term Rev. was the idea of the Korean who made the picture.

I would like to hear from you about the work there now, as we are still interested.

May the Lord bless you richly, is my prayer.

Sincerely yours in His
 J. Michael Shelly
 J. Michael Shelley

는 가족의 건강문제였다. 쉘리는 폐병에 걸려 3년간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의 딸 레이첼은 혈우병을 앓았다. 둘째 이유는, 쉘리가 미국 오리건 주, 바이다에서 1963년 1월 23일에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에게 쓴 편지내용에 의하면, "도쿄 주재 커닝햄 선교부의 감독아래 허락된 부정직과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위들로 인해서 한국에서의 선교 사역이 매우 유감스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 한성신학교, 1991, 117쪽]. 셋째 이유는 커닝햄과의 불화로 미국의 후원자들에게 오해가 생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본토에서는 요즈야선교부에서 해고된 채이스와 커닝햄 사이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때였다. 쉘리와 커닝햄의 불화는 여기에

마이클 쉘리가 테일러 선교사에게 쓴 편지(1963년 1월 23일)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 때문에 켈리는 본국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서울과 인천 및 도쿄에서 증거자료 수집에 매달렸고, 수집된 자료들을 미국에 가져가 공개하였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환원협회’(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가 조선총독부에 확인서를 요청하는 서신을 몇 차례 주고받는 성가신 일이 있었으나 커닝햄이 채이스의 이력에 깔아놓은 먹구름을 제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고, 자신에게 선교헌금을 보냈던 후원자들에게 채이스 가족이 한국에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켈리 가족의 한국선교를 후원했던 많은 수가 채이스 가족에게 후원을 지속하게 되었다<참고: <http://kccs.info/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pdf>; “John T. Chase to Evangelize in Korea,” CS, 29 February 1936: 209>. 게다가 켈리는 채이스가 한국에서 보내준 슬라이드 사진들을 보관하고 있었고, 이 사진들을 보고자 요청하는 교회들을 찾아가 기독교회선교부의 사역자들과 사역들을 설명하였다<“Korean Mustard Seeds,” KM, 1938년 2월호>.

2. ‘기독교회’(남대문동)의 발전과 존 T. 채이스 선교사

1)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전반기 선교활동(1936.11.07-1940.05.31)



John T. Chase(1905.09.17-1987.05.24)

1927년 3월 4일부터<TC, 1927년 4월호> 1934년 11월까지 W. D. 커닝햄(Cunningham)의 요츠야선교부에서 7년 8개월간 월급 선교사로 헌신하였던 존 T. 채이스(John T. Chase) 가족이 서울에 도착한 것은 1936년 11월 7일이었다. 도쿄 요츠야선교부에서 해임되고 본국에 돌아가 잉글우드하이츠 그리스도의교회(Inglewood Heights Church of Christ)에서 1년하고 수개월째 목회하다가 다시 선교사가 되어 서울로 온 것이었다<한국인 전령(Korean Messenger, 1937년 8월호, 이하 KM)>. J. 마이클 켈리 가족이 1935년 10월 28일 한국을 떠난 지<TC, 1936년 1월호> 만 1년 만이었다. 그리고 채이스 가족이 게이조 쇼게추조(경성부 송월동) 32번지의 큰 건물(영국 해외성서공회 소유)을 임대하여 입주한 것은 그해 12월 말이었다<KM, 1937년 2월호>. 그리고 이듬해인 1937년 2월 25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J. 마이클 켈리를 존 T. 채이스로 바꾸는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하였다. 채이스가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포교관리자변경계<조선총독부관보 제3087호 9면(소화 12년 5월 4일);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국가기록원)>를 보면, 켈리가 1935년 4월 25일에 등록한 “기독교회”란 교파명칭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다만 포교관리자를 “J. 마이클 켈리”에서 “존 T. 채이스”로, 포교관리자의 주소를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동 5정목 115번지”에서 “경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



채이스가 신청한 '기독교회' 포교관리사변경계 및 관보게재안(1937.02.25)

1936년 3월 15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잉글우드 기독교회 목사로 종사"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1936년 11월 7일 조선선교사로 임명파송"되었다고 적었다.

채이스는 1937년 2월 25일 포교관리사변경계를 제출하여 조선기독교회 제2대 포교관리자가 된 지 6개월 반쯤 지난 9월 6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자기 자신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221호 4면(소화 12년 10월 9일)). 존 채이스 가족은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 도쿄에서 7년 8개월간 사역하였기 때문에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한국인들의 상당수가 일본어를 알아듣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런 장점으로 채이스는 193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에 돌입하여 '기독교회선교부'(The Korean Christian Mission), 격월간지 <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 KM) 및 '한국인성경훈련원'(The 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을 설립하였다.

채이스 부부는 한국어를 익히기 위해서 한국어 교사를 채용하였는데, 그에게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가르쳐 한국인성경훈련원 제1호 학생과 제1호 개척교회 사역자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오산고등보통학교(오산고제)와 협성신학교를 나온 김요한 목사로서 미국 밀샵스대학(Millsaps College)의 수리학과를 졸업한 후 에모리 대학교(Emory University)에서 B.D.(오늘날의 M.Div)를 받고 귀국한 감리교 목사였다(동아일보, 1931년 1월 17일자). 김요한은 1919년 춘천감리교회 목사 때인 20대 초중반 때 테일러 선교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던 경력자였다. 그는 매일 채이스 가족에게 한국어를 가르쳤고, 채이스는 그에게 신약성경교회를 가르쳤다. 김요한은 선교사의 가르침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자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그는 사도행전 8장을 공부하던 날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침례를 베푸는 장면(행 8:38)에 이르렀을 때 선교사



채이스 선교사가 1937년 초에 설립한 '기독교회' 선교부 (Korean Christian Mission) 직인 및 <한국인 전령>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 발간호

로 변경하였다. 그 밖의 것은 셀리가 제출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채이스는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본적을 "아메리카 합중국 테네시 주 브리스틀 시"로, 생년월일을 "1905년 9월 17일생"으로, 학력을 "1926년 6월 12일 아메리카 합중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신학 졸업"으로, 경력을 "1927년 3월 4일부터 1934년 11월 2일까지 동경 선교사 종사" 및 "1934년 12월 1일부터

에게 물었다. “선교사님, 어째서죠? 저는 결코 침례를 받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 문답이 있고나서 김요한은 자신도 내시처럼 침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1937년 1월 23일 목욕탕을 세내어 침례를 받았다. 김요한은 물에서 나온 즉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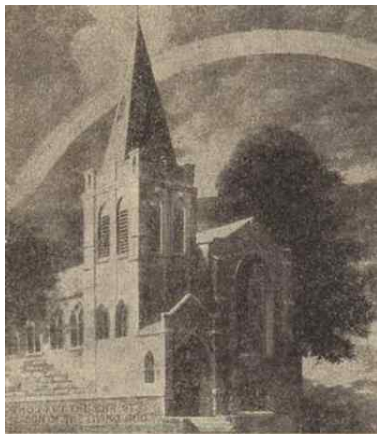


기독교회 선교부 건물
존 T. 채이스 선교사가 1939년 영국 해외선서공회로부터 구입하였다.
(경기도 경성부 송월동 32번지)

목욕탕 종업원에게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인 침례(Christian baptism)의 의미를 설명하였고, 채이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제 신약성경 그리스도인입니다.”(I am now a New Testament Christian.)고 하였다<“An Opportunity” and “Investment Returns,” KM, April 1937: 1, 3; “Brother Chase Has His First Korean Convert,” *Christian Standard*, 27 February 1937: 166, 이하 CS; “Language Teacher

Baptized in Korea,” CS, 20 March 1937: 237>.

김요한은 채이스 선교사의 첫 번째 학생과 제1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다. 송월동 선교부 지하실에 설립한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일주일에 4일씩 신약성경기독교에 대해서 학습하던 김요한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제가 내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것을 전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요한은 1937년 2월에 교회가 없는 신당동 지역에 가정집을 임대하였다. 그리고 가족이 그곳으로 이사하여 살면서 3월 7일 첫 주부터 예배를 드림으로써 신당정기독교회를 개척하였다. 그리고 5월 22일 김요한은 한강에서 자신의 19살 된 아들을 포함해서 5명에게 첫 침례를 베풀었다



FACTS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CHURCH
By P. H. WELSHIMER

<“Another Victory in Korea,” CS, 3 July 1937: 602>. 채이스는 1937년 6월 23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신당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78호 10-11면(소화 12년 8월 18일)>.

김요한은 채이스가 선교부 건물 지하실에 개설한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대략 4년간 신약성경교회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또 교재로 사용한 P. H. 웰시머(Welshimer)의 *Facts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Church*(신약성경교회에 관한 사실들)를 한글로 번역하였다. 김요한은 선교사들이 부재한 1941년 3월부터 1944년 6월 26일까지 기독교회의 제3대 포교관리자를 지냈다<“김요한은 교회들의

법적 대표로서 저자(채이스)를 대신합니다.” “The Situation in Korea,” KM, 1941년 5월호, “The Korean Christian Mission(In Retrospect),” KM, 1946년 5월호); ‘포교관리자변경계,’ 조선총독부관보 제4256호 13면(소화 16년 4월 2일)〉. 그가 포교관리자폐지를 당한 지 나흘 뒤인 6월 30일에 기독교회들은 폐쇄를 당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제5387호 3면(소화 20년 1월 23일)〉.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또 다른 감리교회 목사가 자신이 저술한 계시록에 관한 소책자들을 팔려고 채이스를 찾아왔다. 그가 바로 평양승실중학교, 연희전문학교(문과 제1회, 철학과 신학) 및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다년간 연희전문학교 조교수, 신학교 강사 및 감리교 잡지 〈신학세계〉의 편집인을 지냈던 최상현 목사였다. 그 방문의 결과로 최상현 목사 역시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학습하기 시작하였고(“Notes From the Hermit Kingdom,” CS, 19 June 1937: 553; “Methodist Minister Becomes Christian Only,” CS, 20 November 1937: 1081), 머지않아 성경적인 침례를 받겠다고 자청하였으며, 1937년 9월 1일에 한강에서 침례를 받았다(“Another Preacher Accepts New Testament Christianity,” KM, October 1937, 1; “The Gospel Wins Another Denominational Preacher,” CS, 9 October 1937: 937). 어느 날 최상현은 채이스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감리교회를 탈퇴하였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인(Christian only)으로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교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자 선교사가 말하기를, “아 그러세요. 자랑스럽겠군요?” 그러자 최상현 목사가 대답하기를, “예,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상현은 채이스의 제2교회 사역자가 되어 1937년 10월 17일에 첫 예배를 드린 돈암정기독교회를 창립하였다(“Korean Mustard Seeds,” KM, December 1937: 2). 최상현이 기독교회로 환원하자, 기독교조선감리회는 1937년 12월 15일 포교규칙 제2조의 의거 최상현(경기도 경성부 천연정 34번지)의 포교폐지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304호 4면(소화 13년 1월 24일)〉. 채이스는 최상현이 1937년 10월 17일 제2호 교회인 기독교회 돈암정교회를 개척하자 동년 11월 10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돈암정교회(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의 400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3277호 3면(소화 12년 12월 16일)〉, 12월 2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최상현(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의 400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316호 6면(소화 13년 2월 7일)〉.

채이스의 제3교회는 늦어도 1939년 4월 중순 전에 편입된 성낙소 목사의 내수정의 경성기독교회였다. 성낙소 목사는 1916년 경성구세군사관학교 및 1922년 경성성서학원을 졸업하였으며, 1927년 1월 1일 충남 부여군 화수리 2구 290번지 처가 사랑채에서 기독교회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1930년 5월부터 1931년 9월까지 채이스의 감독을 받으며 일본 요코하마조선인기독교회를 섬겼고, 1931년 9월부터 1933년 5월까지 20개월 동안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를 지낸바가 있다. 성낙소 목사는 제2대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및 제1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였던 이인범 목사의 보복으로

1936년 9월 4일 기독교회 포교자 자격을 잃었고<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체이스 선교사의 사역자들/신약학생들(1938년 1월경, 성낙소(1939년 봄/함성) 좌측부터 성수경(성낙소의 아들), 박판조 목사(경릉교회), 박낙중 목사(왕십리교회), 김요한 목사(신당정교회), 체이스 선교사, 최상현 목사(돈암정교회), 김문화 목사(산돈암정교회), 성낙소 목사(내수정교회)

12년 1월 26일)>,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신고)된 모든 것들을 세탁당한 후<조선총독부관보 제3042호 6면(소화 12년 3월 9일), 제3143호 9면(소화 12년 7월 8일)> 조선야소교회에 가입신청을 해놓은 상태였다. 조선야소교회는 1938년 3월 31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번지 거주)의 포교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4024호 3면(소화 15년 6월 21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60번지 거주)의 경성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경성교회에 성낙소 목사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38호 4-5면(소화 15년 7월 8일)>.

성낙소는 1938년 전반기에 체이스와 재회하였다. 체이스는 ‘한국인 겨자씨’(Korean Mustard Seeds)<KM, 1938년 2월호>에서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대략 7-8년 전에 도쿄에서 한 한국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돌아왔고, 우리는 그 후로 그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12월 24일 아침에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자기가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놀랐을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우리가 7-8년 전에 그의 아버지에게 준 명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쿄에서 체이스로부터 명함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성낙소 목사였고, 그의 아들은 성수경(목사)이었다. 성낙소는 조선야소교회에 가입신청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김문화로부터 체이스가 한국에 와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도 선뜻 만나지 못하다가 아들을 한국인성경훈련원에 보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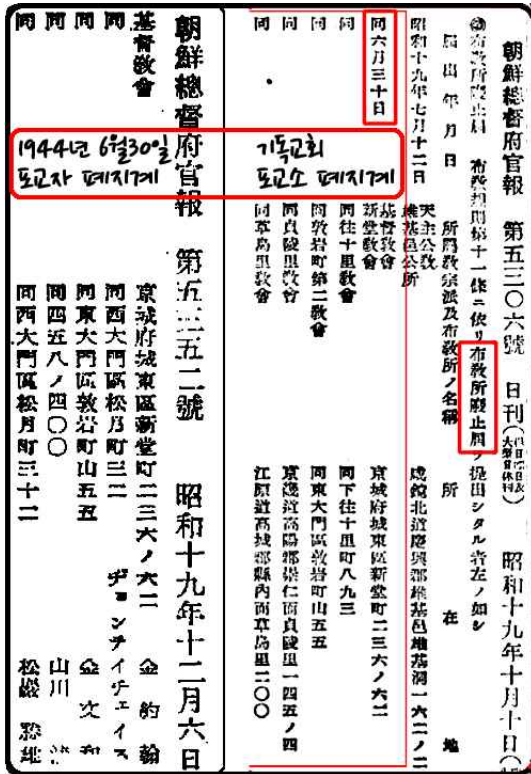
성낙소는 1938년 11월 4일 체이스로부터 침례를 받았고, 1939년 초에 제3교회로 편입하였으며, 1940년 3월 25일까지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신약성경교회를 공부하였다 <“May I Introduce to You,” KM, 1949년 3월>과 <“After Two Years,” CS, 18 March 1939: 262; 17 June 1939: 594; “Three Evangelists,” CS, 8 July 1939: 666>. 체이스는 1939년 3월 29일 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에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성낙소 목사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726호 9-10면(소화 14년 6월 23일)>.

체이스의 제4교회는 박판조 목사가 1939년에 개척만 하고, 담임은 김문화 목사가 맡았던 산돈암정기독교교회였다. 김문화 목사는 장로교 출신의 목사로서 성낙소와 함께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사역자였으나 이인범 목사의 보복으로 1936년 9월 4일 기독교

교회 포교자 자격을 잃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김문화는 1937년 6월 7일 박판조와 함께 한강에서 채이스로부터 침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채이스는 한국인성경훈련원에 성실히 출석하여 공부하는 장로교출신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연장자가 어느 날 채이스에게 말하기를, “저는 20여년 이상 많은 선생들로부터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가 구원에 본질이라는 것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라고 하였고, 장로교출신인 이 두 사람이 6월 7일 월요일에 침례를 받고자하여 한강에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고 하였다<“Another Gospel Victory in Korea,” CS, 17 July 1937>. 김문화와 박판조는 장로교출신이었고 채이스의 학생들이었다. 그러므로 김문화는 1937년 전반기에 채이스와 재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1937년 4월경에 성낙소에게 채이스의 소식을 전하였고<성낙소의 자서전>, 1938년 1월경에 촬영한 한국인성경훈련원 제1회 2학기 단체 사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채이스는 그를 김요한, 최상현, 박판조와는 달리 기독교회 목회자로는 소개하지 않았다. 그 때 김문화에게는 섬기고 있는 기독교회가 없었기 때문이다<KM, 1938년 2월호>. 채이스는 1940년 1월 23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문화의 포교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3943호 3면(소화 15년 3월 14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자신의 제4호 교회인 기독교회 경성 돈암 제2교회(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산 55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3946호 2면(소화 15년 3월 18일)>, 포교규칙 10조에 의거 기독교회 경성 돈암 제2교회에 김문화(경기도 경성부 성북정 109의 2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956호 6면(소화 15년 3월 30일)>.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도서출판 한림, 2006: 289)>는 김문화 목사를 김동열 목사의 부친으로 적고 있다.

채이스의 제5교회는 박판조 목사가 1939년에 개척한 정릉리기독교교회였다. 채이스 선교사가 총애하고 아꼈던 채이스보다 3살 어린 젊은 전도자였다. 박판조는 채이스에게 추천될 당시 수년째 성서공회에 고용되어 있었다. 박판조는 29살 때인 1937년 6월 7일에 김문화 목사와 함께 한강에서 채이스로부터 침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Another Gospel Victory in Korea,” CS, 17 July 1937: 6; “Korean Christian Mission Notes,” 21 August 1937: 769>. 그리고 1937년 11월 1일부터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박판조는 채이스가 자신의 디모데가 될 재목으로 꼽았고, 채이스가 마음을 준 젊고 능력 있는 일군이였다<“Korean Mustard Seeds,” KM, December 1937: 3-4; “Introducing Pan Jo Pak of 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 CS, 11 December 1937: 1154>. 박판조는 1938년 5월 3일에 결혼하였다. 채이스는 이 당시 조선에서는 부모가 정해진 배필과 이유를 막론하고 혼인해야했고, 박판조가 이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신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가정도 부유했다고 적었다<KM, June 1938: 1; “For This Cause,” CS, 2 July 1938: 657>. 채이스는 1940년 5월 17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박판조(경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의 포교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4037호 12면(소화 15년 7월 6일)>,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에 박판조(경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35호 2-3면(소화 15년 7월 4일)>.

그러나 채이스의 이들 교회들은 일제에 의해 폐쇄조치를 당하였다. 1941년 3월경부터 1944년 6월 26일 포교관리자폐지계를 신고할 때까지 만 3년간 '기독교회' 제3대 포교관리자였던 김요한은 세 차례나 옥고를 치렀고, 1944년 6월 30일 '기독교회' 포교자 및 포교소폐지계를 신고하였다. 이때 폐지 신고된 포교자는 성낙소를 뺀 채이스와 나머지 목회자들이었으며, 포교소는 신당정교회, 왕십리교회, 돈암 제2교회, 정릉리교회, 초도리교회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256호 13면(소화 16년 4월 2일);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제

5387호 3면(소화 20년 1월 23일); John T. Chase, "Workers Contacted," CS, May 1947: 9>.

채이스 선교사 가족이 1940년 6월 1일 안식년과 모금을 위해서 서울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기까지 3년 7여개 월 동안에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이들 다섯 명의 사역자들과 다섯 개의 기독교회들이었다. 나중에 채이스는 그들이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 가입거부와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한 것과 그로 인해서 매를 맞고 투옥되는 박해와 교회폐쇄조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암동그리스도(인)의교회(최상현 목사)와 내수동 경성그리스도(인)의교회(성낙소 목사)가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고, 눈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같은 결실은 자신이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그들에게 신약성경 기독교를 철저히 교육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후의 선교는 살아남은 이 두 개의 교회를 기반으로 확장되어 나갔다. 이밖에 업적으로는 일제에 빼앗긴 기독교회선교부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끝까지 분투한 것과 존 힐(John J. Hill)을 선교사로 발굴한 것이었다<"Another Missionary for Korea," KM, October 1938: 1.>.

2)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후반기 선교활동(1940.06.01-1956.01.03)

채이스는 1939년 초에 영국해외성서공회로부터 송월동 선교부 건물(가치: 17,000달러)을 10,000달러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KM, 1939년 2월호>, 모금활동을 시작하여 그해 말에 약정 금액의 절반인 5,000달러를 갚았다. 참고로 채이스가 1938년에 선교비로 후원받은 돈의 총액이 3,405달러 14센트, 월 평균 284달러 18센트였다. 채이스는

이 돈에서 김요한, 최상현, 성낙소, 박판조 등에게 매월 15불씩 생활비와 교회당 임대료로 10달러 정도씩 총 120달러 이상을 지불하였고, 나머지로 기독교회선교부 건물 임대료와 자신의 가족의 생활비, 기타 선교비용으로 사용하였다(“A New Church Started at Seoul,” *CS*, 17 June 1939: 594).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비록 영국해외성서공회가 선교지원차원에서 건물을 헐값에 넘겨주긴 했어도, 10,000달러를 모금하기가 결코 녹록치 않았다. 그나마 주간지 「크리스천 스탠다드」(Christian Standard)가 모금운동에 협력하였고, 선교기금을 운영한 그리스도인환원협회(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의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채이스는 나머지 부족금액을 모금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갖기로 하고 1940년 6월 1일에 서울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다(KM, 1940년 12월 4호). 이 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존 힐(John J. Hill) 선교사 가족이 서울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일 년 정도 경과했고 업무를 맡길만했기 때문이다.

힐 가족은 1939년 6월 1일 가노마루(Kano Maru)호를 타고 LA를 떠나 6월 16일 요코하마에 도착하였고, 6월 18일 오사카의 이민국과 세관에 들러 입국심사를 받았으며, 20일(화) 아침에 기차를 타고 밤이 돼서야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였다. 시모노세키에서 탄 배가 뱃고동 울리며 밤새달려 이튿날(21일) 새벽 6시에 존 힐 가족을 부산에 데려다놓았다. 힐 가족이 마중 나온 박판조와 함께 서울(케이조)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3시였다(KM, 1939년 8월호).

그러나 채이스가 한국을 떠난 지 4개월쯤 지난 10월에 미국정부는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자국민들에게 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있으므로 한국을 떠날 것을 충고하였고 배를 보내 철수를 도왔다. 그래서 힐 가족은 한국에 온지 17개월만인 1940년 11월 16일 마리포사(Mariposa) 호를 타고 인천항을 떠나 미국으로 철수하였다[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 연세대출판부, 2007), 522; 김승태, <한말·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229]. 그리고 채이스 선교사의 노력에 결실이 있어서 미국에 돌아간 지 5개월쯤 되었을 때는 영국해외성서공회에 갚아야 할 잔금 5,000달러 가운데 부족금액이 150달러만 남게 되었다(“Almost Finished,” *CS*, 16 November 1940: 1160).

전쟁이 임박한 위기상황 때문에 미국 정부는 선교사들의 한국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였고, 가족들의 입국을 불허하였다. 힐 가족이 귀국을 해버렸기 때문에 채이스는 애써 마련한 선교부 건물과 두고 온 가재도구들 그리고 5명의 목회자들의 생계와 그들의 교회들이 걱정이 되어 미국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채이스는 1941년 2월 24일 가족을 미국에 남겨둔 채 혼자서 서울로 돌아왔다. 교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와 선교부의 재산을 보호할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였다. 채이스가 돌아왔을 때 교회는 하나 더 늘어나 있었다. 채이스는 이들 교회들을 차례대로 방문하여 위로하고 권면하였다. 그러나 채이스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형사들이 붙어 다녔고, 목회자들이 경찰서에 불려가 일제가 스파이로 의심하는 선교사와 나눈 교제 때문에 매를 맞고 선교사와 만나 나눈 모든 내용을 써서 제출해야 했다. 채이스는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체류기간을 겨우 한 달만 채우고 3월 마지막 날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른 채

목회자들과 송별해야 했다. 존 힐은 ‘힐 요한 선교사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역사’(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췌메론〉(한국성서신학교, 1972년 4월 18일)]에서 이 짧은 체류기간에 채이스는 선교부 건물을 그 곳에 난로공장을 세운 전향섭에게 임대 놓았고, 임대료를 받아 목회자들의 활동비에 보태도록 하였으며, 두 선교사가 사용하던 가구와 은제식기류, 침대보, 재봉틀 등을 모두 팔아서 1941년 말까지 목회자들이 쓸 수 있는 활동비를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채이스가 전쟁 전에 이들 목회자들로부터 마지막으로 연락을 받은 것은 1941년 10월이었다. 그리고 12월 7일 아침에 일본이 미국 하와이 주의 오아후 섬 진주만에 있는 미군 기지에 기습 공격을 가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후 1946년 5월호 〈한국인 전령, KM〉이 발간되기 전까지 근 4년 반 동안 한국과의 연락은 두절되었다.

존 T. 채이스가 한국에 신약성경교회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집하고 발행한 〈한국인 전령〉(테네시 주 브리스톨) 1941년 5월호에는 한 달간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소감이 다음과 같이 실렸다(KM(Bristol, Tennessee, May 1941), Published in the Interest of New Testament Christianity in Korea, by J. T. Chase, Editor and Publisher).

테네시 주 브리스톨, 1941년 4월 22일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에게(To Those Who Share:),

우리는 아래의 ‘한국의 상황’이란 글에서 우리가 한국에 가서 파악한 정황들을 간략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글에 실린 사진들은 과거 몇 년간 우리가 교육한 신실한 한국인 전도자들에 의해서 사역이 수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신실하고 역량 있는 설교가들이고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들의 장래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사역할 수 없는 시기가 오겠지만,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들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마땅히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이 잘 세워져 왔고, 이들 전도자들도 잘 훈련되어서 사역이 우리 없이도 발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역량을 다해서 이곳 미국의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며 그간 한국에서 이뤄진 사역들과 되어져가고 있는 사역들을 선교 보고하는 일로써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방법으로 우리의 형제들에게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사역은 여전히 지원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글에서 언급된 사역에 대한 자금지원은 값아야할 용자으로써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 후 또 선교사들을 위한 지원이 마련된 후에 여러분의 돈은 한국에서의 사용을 위해 비축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이들 우리의 형제들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박해의 시기에 그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기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은 한국에서 승리하였고, 승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난관의 시기에 마음이 약하여지지 맙시다. 우리가 한국인들의 비옥한 마음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는 사실을 아시고 남자든 여자든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희망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놓여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굳건합니다.

한국에서의 여러분의 동료

존 T. 채이스

한국의 상황(The Situation in Korea)

지난 6월에 우리는 잘 진행되던 사역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최근 몇 달 동안 보았던 것과 같은 발전들과 긴박한 국제관계들에 대한 징후는 그 무렵 아



‘신당정기독교회’ 김보환 목사(1941년 3월)



‘돈암정기독교회’ 최상현 목사(1941년 3월)



‘내수정기독교회’ 성낙소 목사(1941년 3월)



‘산돌암정기독교회’ 김문화 목사(1941년 3월)



‘정릉리독교회’ 박판조 목사(1941년 3월)

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충격적인 소식, 곧 미국 정부가 극동에 나가 있는 자국민들에게 귀국할 것을 촉구하였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한국과 만주국에 머물던 다른 2백 명이 넘는 선교사들과 함께 힐 선교사 부부도 지난 11월에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그곳에서의 사역은 선교사의 감독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불가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날아오는 소식들 중에는 상충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엄중한 검열과 다른 이유들 때문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얻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결론은 한국에 가서 우리가 작년 5월에 떠난 이후 한국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최상의 일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우리는 미국정부로부터 가도 좋다는 허가를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에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배를 탔습니다. 물론 가족이 함께 가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저는 일본에 2월 21일에 도착하여 도쿄와 오사카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일본제국에 머무는 동안 면전에서 매우 정중한 대우를 관리들로부터 받았습니다.

한국 서울에 2월 24일(월)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이 크게 바뀐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의 설교가들이 나를 서울역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 친구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그렇게 할 만큼 용감한 사람들이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보자 기뻐하였고 매우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꺼이 집회들에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혹스런 일이란 것을 나는 이내 알아했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인과 가깝게 지내면 그는 “외국인 스파이”와 연계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설교가들

과 몇 차례 회의를 가졌는데, 그 때마다 각각의 설교가들은 회의에서 나뉘던 말과 일들을 각각의 관할 경찰서에 보고해야했습니다. 대개의 그 같은 모임들과는 달리 담당형사나 경찰이 이들 모임들에 단 한 번도 임석하지는 않았지만, 곧이어 나는 여러 증거로 볼 때, 당분간은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함께하는 것보다 교회들이 더 잘 꾸려갈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선교사의 도움 없이 지낸 수개월 후 그 사역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년간 가르치고 훈련시킨 설교가들은 남녀무론하고 누구에게나 신실

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나는 네 번의 주일들(3월 2,9,16,23일)을 서울에서 지켰습니다. 네 주일들 중 두 주일에는 침례탕이 사용되었습니다. 침부한 사진들은 3월 16일(일)에 찍은 것들로써 각각 교회가 평균 출석률 또는 평균이하의 출석률을 보였지만, 이들 교회들이 살아 있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출석률이 조금 떨어진 것은 불신자들이 집회들에 참석하는 것을 종종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애석하게 여기는 한편, 우리는 선한 뜻이 이 진통의 시기에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많은 씨가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이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연단 받고 있고 엄격하게 연단 받을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해야 했던 한국 교회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되었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철저하게 조사하였고, 기독교회선교부와 관련된 교회들은 신사참배하려하지 않고 있다고 확신합니다.(The churches connected with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ARE NOT GOING TO THE SHRINE.) 그들은 동방요배하지 않습니다.(They ARE NOT BOWING TO THE EAST.)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교회연합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전 진술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들 교회들은 이 질문에 괴롭힘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종교들 법안(Religions Bill)은 한국에서 보급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조사와 관찰에 의하면, 몇 가지 사실들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첫째, 교회들과 설교가들은 일종의 성경적 방식에서 수행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둘째, 그들은 여전히 후원이 필요하고, 확실히 그 같은 혜택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 시점에서 선교사가 체류하는 것은, 설사 선교사가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사역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교사가 돕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닥칠 일체의 의심 때문입니다. 넷째, 후원이 필요하고 전적으로 그럴만한 가치가 있지만,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달 후원금을 보내는 것은, 설사 가능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는 그것이 회의적이므로, 매우 어리석은 짓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후원금을 마련해줘야 하는가였습니다. 힐 선교사 부부가 지난 11월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그들의 가구와 피아노 등을 놓고 나왔고 그것들을 팔아서 사역에 충당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이 지시는 실행에 옮겨졌고, 돈은 사역에 쓰였으며 조심스럽게 쓰였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이타적인 선교사를 결코 안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힐 선교사 부부는 미시건 주 스톨지스(Sturgis)에 있고, 처음부터 다시 살림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그들이 최소한이라도 필요한 것이 채워졌으면 합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가 한국에 기금을 남겨서 사역이 수행되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였습니다. 정말 시급한 일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들 설교가들과 교회들, 믿음으로 낳은 우리의 자녀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이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홀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겨우 기어 다닐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그들이 일어서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부양해야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았습니다. 침대들, 테이블들, 재봉틀, 침대보들, 은그릇들, 양탄자들, 기타 팔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1941년 말까지 사역을 후원할 충분한 돈을 한국에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만약 우리가 여전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바라기는 그들에게 지속해서 기금을 전달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사역은 우리가 신뢰하는 김요한, 최상현, 박관조 세 사람의 위원회에 일임하였습니다. 김요한은 교회들의 법적 대표로서 저자(본인)를 대신합니다. 박관조는 협력자인 최상현과 더불어 회계를 맡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충성심과 진실성에 있어서 완벽한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는 미국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가구와 집기들을 판 이 절차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조치들이었음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방법밖에 다른 방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같이 훌륭한 방법으로 성장해온 사역의 지속을 보장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지혜를 짜서 모든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전도자 박판조는 우리가 없는 동안 재산의 책임자로서 기독교회선교부 건물에 들어가 삽니다. 채플실과 침례당은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계획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마땅히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 우리가 돌아가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사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들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오늘날 형제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정으로 싸우고 있는 신약성경 그리스도인들이 수백 명이나 됩니다. 박해가 그들에게 압박해 있고, 그들 앞에는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3월 23일 주님의 날 저녁에 이들 형제들과 헤어질 때 우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남녀 그리스도인들이 홀로 전쟁에 나가 싸우게 두고 떠나야하는 우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혼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과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가 그들 중에 계속 체류하는 것은 그들의 짐만 더욱 무겁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아래에 첨부한 몇 장의 사진들을 제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것이 전해진 곳에서 성취되었습니다.

J. T. 채이스

기독교회 선교부

테네시 주 브리스톨

채이스 선교사가 1941년 3월말 이후 한국에서 편지를 받은 것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봄이었다. 채이스는 최상현 목사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고, 두 사람으로부터는 간접적으로 연락을 받았다. 최상현 목사는 편지에서 1941년 후반기에 일제로부터 모든 교회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개의 교회들은 전쟁 중에도 매주일 비밀리에 모여서 말씀선포와 주의 만찬을 빠트리지 않았다고 전하였다<“The Korean Christian Mission(In Retrospect),” KM, 1946년 5월호>. 여기서 1941년 후반기는 그해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새로운 종교법 시행이후를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독교회들은 1944년 6월 30일에 폐쇄를 당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 4256호 13면(소화 16년 4월 2일); 제5387호 3면(소화 20년 1월 23일);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채이스는 모든 교단에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수개월 전에 이미 철수하고 없는데다가 일제의 압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했던 때에 어렵게 재입국하여 1941년 2월 24일부터 한 달 남짓 머무는 동안 제3대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에 김요한 목사를 제출하였고, 최요한 목사와 박판조 목사에게는 회계를 맡겼으며, 특히 박판조에게는 기독교회선교부 건물에 들어가 살면서 재산을 지키는 책임자로 세웠다. 그러나 이듬해인 1942년에 일제는 기독교회선교부 재산을 적산(敵産)으로 선포하였고, 몰수하여 1943년에 한국인(난로공장 사장 임차인 전향섭)에게 팔아버렸다. 이후 채이스 선교사는 기독교회선교부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1947년 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서울에서 한 달 반가량 체류한 때와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1949년 2월 중순경에 떠날 때까지 미군정과 대사관에 여러 차례 호소하였으나 기대했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존 힐 선교사의 글, ‘힐 요한 선교사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역사’(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세메론>(한국성서신학교, 1972년 4월

18일])에 따르면, 서대문구 송월동 32번지의 기독교회선교부 재산을 완전히 되찾게 된 때는 1952년경이었다. 힐 선교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그러나 1951년 7월 3일까지 남자 선교사들이 한국에 돌아오기 시작하였고, 필자도 바로 그 날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필자는 부산에서 고아원을 시작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을 만나 뵈려고 갔었을 때, 그분은 필자더러 서울에서 시작하도록 권유를 하셨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필자의 오랜 친구, 당시 젊은 청년이었던 성수경을 찾았으며, 서대문 근처 송월동 32번지에 있었던 구 선교부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동행하였습니다. 전향섭은 탄환이 장전된 연발권총을 들고 우리를 쫓아왔으나 우리가 합법적인 재산 소유자임을 알고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건물의 절반을 차지했고, 전향섭도 나머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약 일 년 후에 미국 대사관과 영국 해외성서공회의 도움으로 우리는 마침내 전세를 몰아냈습니다. 그 대신 전씨는 정부가 일본인 자산에서 지불한 정착금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필자는 끝내 재산을 되찾게 된 것을 무척 기뻐했으며, 전쟁 중 폭격으로 부분적으로 파손된 구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많은 돈을 들여 수리를 마쳤습니다.

채이스는 미군정이 몰수당한 재산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확신하였고, 재산을 되찾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채이스 선교사가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미국정부가 한국의 불안한 정세를 이유로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한 미군 장교가 기독교회선교부 건물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갔고, 채이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KM, 1946년 5월호).

한국인이 거주하는 동안 건물과 대지는 황폐해졌습니다. 그렇다고 건물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조그만 고치면 그 집은 쓸 만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수도설비를 고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대지를 깨끗이 정리하는 것 또한 필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구조를 조금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렵 채이스는 잉글우드하이츠 그리스도(인)교회(Inglewood Heights Church of Christ, Inglewood, Calif.)에서 목회사역을 하였고, 퍼시픽성경신학교(Pacific Bible Seminary)에서 매주 하루씩 강의를 하면서 거의 매일 강연을 다녔으며, 모금과 선교사 모집까지 병행하였다. 그 결과 모금 잔액이 1402.07달러에 달했고, 기독교회선교부 소속 선교사들로서 채이스 가족과 힐 가족 및 클라이드 아담스(Clyde Adams) 가족이 포함되었다(KM, 1946년 5월호). 그 여간에 기독교회선교부 재산을 되찾기 위한 청구가 법무부 청구국(Claims Bureau of the Department of Justice)에 접수되었다는 편지가 ‘한국 주둔 미국군정 본부, 문민 통치자를 위한, 군무국장국’(Adjutant General's Department, For the Civil Administrator, Headquarters,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으로부터 왔다(KM, 1946년 10월호).

채이스는 1946년 12월 23일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머린 펠컨’(Marine Falcon: 바다의 송골매)을 타고 심한 폭풍과 거친 파도와 뱃멀미에 시달리며(배 안에서 2명이 사망) 예정보다 많이 늦은 1월 7일 일본 요코하마 항에 도착하였다. 배를 탄 첫 주일날 설교를 맡았지만, 배가 요동을 치는 바람에 서 있기가 너무나 힘든 상태였다. 일본에서는 에롤 로호즈(Errol Rohodes) 대위와 할 마틴(Hal Martine) 군목이 마중을 나와 주었

다. 할 마틴(Hal Martin) 군목은 일본 큐슈에서 복무하고 있었다. 할 마틴은 수개월 후에 김포 미항공기지로 전근을 하게 되어 1947-48년 사이에 선교사의 부재를 매우게 되었다. 채이스는 일본에서 1주일을 머문 후에 1월 중순에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가 히로시마 상공을 날았지만, 두터운 구름층에 가려 볼 수는 없었다. 한국입국 수속은 미군이 장악하고 있어서 예전에 비해 너무나 쉬었지만, 비싼 경비를 지불하고 타고 온 비행기에 난방시설이 없어서 엄청난 추위에 떨면서 서울에 도착하여 군부대 숙소에 여장을 풀었다. 1941년에 다녀간 지 꼭 6년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었다<KM, 1947년 5월호>.



채이스가 1947년 2월 초에 방문했던 필운동 그리스도(인)의교회
채이스는 이 교회를 예전처럼 내수동교회로 불렀으며, 선교지원금 없이
마련된 이 필운동교회 예배당을 희생의 결과라고 적었다.

채이스는 서울에서 한 달 반가량 체류한 후 3월 1일에 인천항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미육군 수송선인 ‘캡스 제독’(Admiral W. L. Capps)호에 승선하여 3월 5일 배 안에서 ‘선교사의 발자취’(Missionary Footsteps)란 글을 썼다. 이 글에 보면, 채이스는 서울에서 머무는 동안 기독교회선교부 재산을 되찾기 위해

서 모든 가능한 일을 다 하였지만 최종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최종결과는 1952년에 가서야 나타났다. 서울에 도착한 첫 주에만 수차례 교회들을 방문하였고, 최상현 목사와 성낙소 목사와 수차례 회합을 갖고 앞으로의 사역을 계획하였다. 보충대(Replacement Depot)로 향하기 위해서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채이스는 내수정 교회의 사택에서 최상현 목사와 성낙소 목사와 만나 기도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성낙소 목사는 사도행전 13장을 읽고 말하기를, “주님께서 최 형제와 나를 불러 한국에서 신약성경기독교예로 길을 인도하라는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고 느낀다”(I feel that the Lord has called Brother Choi and myself to a definite work, that of leading the way to New Testament Christianity in Korea.)고 하였다. 이어 최상현 목사도 말하기를 “나는 디모데후서 4장 1-2절의 말씀에 따라서 더욱 가치 있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라는 압박을 항상 받는다”(I am constantly feel spurred on to more worthy endeavor by the words of II Tim. 4:1,2)고 하였다. 이 두 목회자들은 고난과 시련도 많이 겪었지만, 경제적으로도 몹시 어려웠기 때문에 채이스는 서울에 머무는 동안 매주 힘닿는 대로 필수품을 공급해 주었다. 채이스는 3월 13일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으나 한국에서부터 후두염에 걸려 상당기간 고생하였다.

채이스 선교사는 미국에 머물며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구호물자를 수집하여 한국에 보내는 일에 힘썼다. 구호물자들은 필운동 289번지의 성낙소 목사와 필동 2가 124번지의 최상현 목사에게 보내졌다.

<한국인 전령, KM> 1947년 5월호에서는 기독교회선교부(the Korean Christian Mission) 소속 직원으로 채이스 선교사 가족와 힐 선교사 가족 그리고 최상현 목사와



채이스 선교사가 1947년 2월 9일 초청받아 설교한 일본인 거류지였던 대방동의 임대건물에 세워진 교파교회. 담임목사 D. W. Chai는 최상현 목사로부터 재침례를 받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으며, 신약성경교회에 관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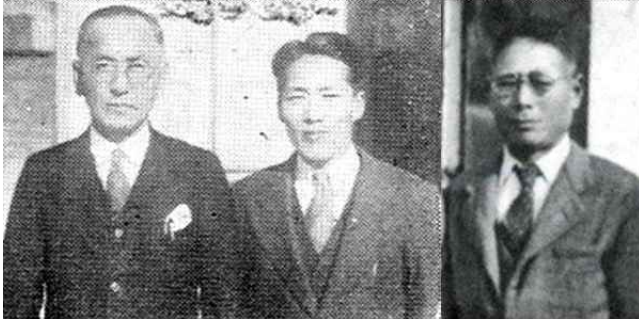
성낙소 목사만 열거되었다. 일제의 모진 압제와 탄압이란 불같은 시험을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은 교회는 돈암동(1936년 4월 1일에 돈암리에서 돈암정으로 바꿨다가 1946년 10월 1일부로 돈암동으로 개칭) 그리스도(인)의교회와 성낙소 목사의 내수동 그리스도(인)의교회뿐이었다. 채이스는 1947년 1월 중순경에 주일날 최상현 목사의 돈암동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

하였다. 당시 돈암동 교회는 일본 적산가옥을 임대하여 살고 있는 한 성도의 가정에서 모이고 있었다. 난방도 되지 않는 집 2층에 있는 두 개의 방에 성인남녀와 학생들까지 40여명이 모였다. 참석한 다수의 성도는 채이스가 1936-41년 사이에 침례를 베푼 성도들이었다. 그날 채이스는 빌립보서 3장 13-14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였다. 전쟁과 박해와 군 칙령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켜낸 이들과 함께 드린 예배는 채이스에게 남다른 감회와 깊은 감명을 준 자신의 희생을 값지게 한 보람찬 경험이었다.

그 다음 주에는 성낙소 목사의 내수동 그리스도(인)의교회에서 설교하였고 (채이스는 1948년 말에 가서야 비로소 내수동교회를 필운동교회로 고쳐 불렀다), 이어진 주일에는 미군부대에서 설교하였다. 주중에는 기독교회선교부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였다. 2월 9일 주일 낮 예배 때 교파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였는데, 최상현 목사가 침례를 베푼 채(D. W. Chai)라는 이름의 감리교 목사가 일본인들이 모여 살던 대방



동에 건물을 임대하여 개척한 교회였다. 이 교회에는 각종 교단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채이스는 이 교회가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할 것으로 믿었다.



초창기 '기독교회' 목사들(상좌부터) 김보한(신당정교회), 최상현(돈암정교회), 성낙소(내수정교회), 김문화(산도암정교회), 박판조(정릉리교회), 박낙중(공덕동교회)

채이스는 1947년 1-2월 중 서울에 머무는 동안 예전의 사역자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최상현 목사와 성낙소 목사는 사역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쉽게 만날 수 있었지만, 다른 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몹시 추운 날 채이스가 서울거리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김요한 목사였다. 김요한 목사는 그 무렵 사역을 쉬고 있었다. 김요한 목사는 해방 전 세 차례나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고 했다. 김문화 목사는 서울을 떠나 시골에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 채이스는 박판조 목사를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가 소련군정이 통치하고 있는 북한에 머물며 한의업에 종사한다는 것뿐이었다. 이 기간에 채이스는 동석기 목사도 만났다. 동석기는 소련군정이 입북하기 이전에는 북한에 머물며 사역을 펼쳤으나 소련군이 입북하기 직전에 남하하였다. 그러나 사모와 자녀들 일부가 북한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동석기는 말하기를, 소련군이 자신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하였다<“Workers Contacted,” KM, 1947년 5월호>. <한국인 전령, KM> 1949년 3월호의 내용은 대부분 채이스가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1949년 2월 중순경에 떠날 때까지 한국에서 지낸 보고들로 채워졌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존 힐 선교사 가족이 1949년 2월 15일에 한국에 도착한다는 것이고, 김문화 목사가 1949년 2월 초에 사망하였다는 소식이다. 채이스는 존 힐 선교사 가족이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에 머물러 있었다<KM, 1949년 3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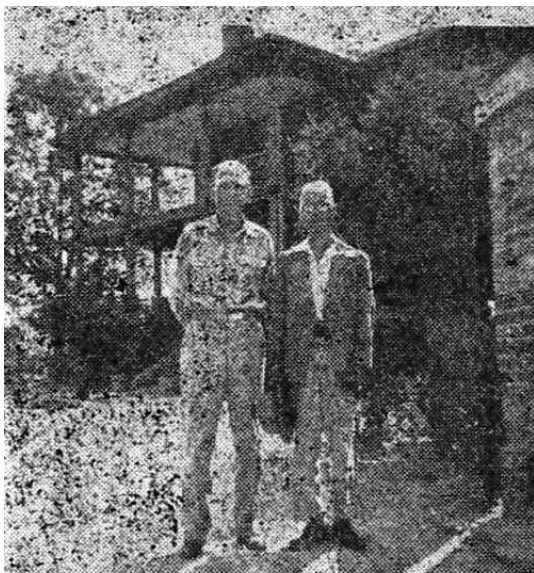
채이스 선교사는 김문화 목사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바로 얼마 전 겪은 이번 주 가장 큰 손실은 김문화 목사의 서거였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일주일 전, 그는 신약성경교회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성경의 명백하고 단순한 가르침에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만드는 일에 있어서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그분의 아들의 집에서 성낙소 목사의 집례와 최상현 목사와 채이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치러졌습니다<“A Great Loss,” KM, 1949년 3월호>.

김문화 목사의 별세 및 그가 김동열 목사의 부친이라는 증언과 관련해서 몇 가지 고리들을 연결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도서출판 한림, 2006: 289)>가 김문화 목사를 김동열 목사의 부친으로 언급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김문화 목사의 별세 전인 1947-48년에 최상현, 성낙소, 할 마틴 군목이 부강교회에서 신약성경교회를 한 두 차례씩 강의한바가 있었다는 점이며, 셋째는 지철희 목사가 “김동열 목사님의 부친은 순교를 하셨는데... 일제말엽 때 복음을 전하시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투옥을 당하셨고, 많은 고문과 고통을 받던 중에 해방을 맞이하여 출감하셨는데, 오갈 때가 없어서 부강 그리스도의교회 사택에서 간호를 받으시면서 기거를 하실 때에 내가 딱 한번 뵈 기억이 난다... 그 당시 내가 듣기로는 우리 그리스도의교회에서 아주 귀하고 유명한 목사님이시었다... 부강 그리스도의교회에서 순교를 하셨다는 소식을 소문으로 알았다.”고 회고한바가 있다는 점이다. 다만 지철희 목사는 김문화 목사의 본명인 김용수 또는 이명(異名)인 김용하를 김용환으로 잘못 기억하였다. 넷째는 김문화(김용수)의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에 “朝鮮宣敎會 전도사로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전도에 힘쓰고 일제의 멸망을 설교하다 일경에 피체되어 징역 3년형을 언도받은 사실이 확인됨”이라고 적고 있다는 점이다<공훈전자사료관, <https://e-gonghun.mpva.go.kr/diquest/Search.do>>. 여기에 적힌 ‘조선선교회’는 김문화가 성낙소와 함께 이인범으로부터 ‘포교자폐지’ 및 ‘포교소폐지’를 당했던 ‘기독교회 조

선선교회'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김문화의 사망일자가 채이스 선교사의 기록과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채이스는 김문화의 별세일자를 1949년 2월초라고 한 반면, 공적조서에는 1957년 4월 28일로 되어있다. 채이스의 보고는 김문화의 장례를 치른 직후에 쓴 것이어서, 만일 김문화가 김용수와 동일인이라면, 사실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 7년 뒤에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1956년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교회순방에 나섰을 때, 4월 2일 월요일에 신탄진교회를 방문하였는데, 담임목사가 김동열이었다. 3일 화요일에는 부강교회(김은석 목사)를 방문하였다. 공적조서 내용대로라면, 김문화 목사는 이때까지 생존해 계셔야 한다. 이런 정황들로 미뤄보아 김문화는 김동열의 부친이었고, 별세한 장소는 신탄진교회이거나 부강교회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김은석(부강교회)은 1953-58년 사이에 기록한 성경메모에 동역자들의 별세자 명단을 별지에 기입해 두었는데, 정찬성 목사(1957년 4월 25일), 김재순 목사(1958년 2월 26일), 강순명 목사(1959년 3월 12일)가 포함되었다. 심지어 이신 목사 부친(1954년 6월 16일)과 이종만 목사 모친(1957년 8월 14일)의 별세 일자까지 적어놓았다. 하지만 김은석은 1957년 4월 23일 목포로 내려갔고, 28일 주일에는 강진군 강진읍 용동면과 황동면에 있었으며, 5월 중순까지 전남지역에 머물며 집회를 인도하였다<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그리스도 의교회연구소, 2010: 50, 57, 196), <http://kccs.info/keskoreanpaul.pdf>>. 공적조서의 내용대로, 김문화 목사가 정찬성 목사의 별세 3일 직후인 1957년 4월 28일 신탄진 혹은 부강에서 별세하였다면, 김은석 목사가 기록에 남기지 않았을 리가 없다.

1947년 초가을에 군목 할 마틴(Hal H. Martin)이 한국근무를 명받고 부인 에버린(Evelyn)과 아들 게리(Gary)를 데리고 한국에 왔으며 김포 항공기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마틴은 한국 근무기간 동안 최상현 목사를 비롯하여 그리스도(인)의교회들 관련자



기독교회선교부 건물 앞에서 군목 할 마틴(Hal Martin)과 최상현 목사. 선교사가 없던 1947년 후반기에 전군을 명받고 가족(Evelyn, Gary)과 함께 김포 항공기지에서 1947-48년 사이에 근무하면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많이 도왔다.

들을 자주 만났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KM, 1947년 12월호>. 채이스 선교사는, 1947년 말까지도 미국정부가 한국에 선교사가족들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군목 할 마틴을 한국으로 보내 내국인 사역자들과 교회들을 돕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마틴은 1949년 전반기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 매클렐런 공군기지(McClellan Air force Base)에 근무하고 있었고, 채이스의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에 50불을 보냈는가하면, 자신과 기지교회의 그룹에서 부활절헌금과 함께 격려 편지를 채이스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다<"On the Trail of the Missionary" and "Words of

Encouragement,” KM, 1949년 7월호〉.

할 마틴은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1910년경에 출생하였고, 부인 에블린은 마틴보다 한 살 위였다. 군목이 되기 전에는 캘리포니아 주 린제이(Lindsay)에서 목회하였다. 공군 군목으로 입대하여 대령으로 제대하였다.

마틴은 어린 군인이었던 폴 잉그램이 한국 기독교회선교부 소속의 선교사가 되도록 영향을 끼쳤다. 마틴은 탁구선수였기 때문에 사병들로부터 인기가 좋았다. 마틴이 미군 정시대에 김포 항공기지에서 근무할 당시에 그에게 영향을 받아 제대 후 신학교에 입학한 어린 사병이 있었다. 그가 바로 한국전쟁 중에 선교사로 돌아와 존 힐(John J. Hill)과 함께 서울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에서 사역한 폴 잉그램(Paul Earnest Ingram)이다. 그는 14살에 권투선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많은 경기에서 승리하였으나 학업을 중단하고 16세 때 군에 입대하여 한국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4월에 잉그램은 다른 네 명의 군인과 함께 마틴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결심한 잉그램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국에서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분을 그곳으로 다시 모셔가겠습니다. 그곳은 갈기갈기 찢긴 나라입니다”(I found Christ in Korea. I’m going to take him back there. It’s a torn-apart country). 그리고 잉그램은 19세 때 제대를 하고, 링컨성경학교(1944년 설립, 현 Lincoln Christian University)에 입학하여 23세 때인 1952년에 졸업하였다. 잉그램은 학생시절부터 인디애나 주 코빙턴(Covington)에서 이미 3년째 목회를 하고 있었다. 그는 부인 조안(Joan)과 어린 두 자녀들을 데리고 1952년 후반기에 일본 도쿄(東京)에 도착하여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존 J. 힐(John J. Hill) 가족과 함께 일본에 체류하였다〈“Korean Christian Mission,” CS, 17 May 1952: 318〉. 이 기간에 잉그램은 힐과 함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가족을 일본에 남겨 둔 채 한국에 들어와 사역하다가〈Emma Rivers Milner, “Church News: Back to Korea, As Missionary,” The Indianapolis Times: 4, Saturday, July 26, 1952〉 1953년에 서울에 주재하였다.

최상현 목사는 1947년 10월에 채이스에게 흥미로운 보고를 하였다. 이전에 말했던 자신의 친구가 충청지역에 세운 교회에서 최근에 40명이 침례를 받았고, 인근에 두 개의 교회들이 더 세워졌으며, 이 교회의 요청을 받고 성낙소, 최상현, 할 마틴 군목이 한 두 차례씩 이 교회에 내려가 신약성경교회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했다. 그리고 채이스는 최상현의 친구라는 사람이 장로교인 내과 의사인데, 최상현 목사로부터 가르침과 침례를 받은 분이라고 첩언하였다〈KM, 1947년 12월호〉. 필자의 생각으로는 최상현과 채이스가 언급한 이 충청지역의 교회는 김은석 목사가 세운 부강교회를 말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장로교 목사였던 김은석은 1946년 무렵에 부강그리스도(인)교회를 개척하였고, 의사였던 신현창 장로는 김은석 목사와 함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조직하여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있었다. 1950년대에 충청이남지역에 수십 개의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개척한 목회자들이 대부분 이 신화신학연구회 출신들이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김은석은 1963년 1월 21일 충남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 그리스도(인)의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신 후 탈장으로 별세하였고, 신현창 또한 1964년에 충곡리 그리스도(인)의교회의 목회자로

부임하여 계시다가 별세하였다.

채이스는 한국인성경훈련원의 운영을 힐 선교사에게 맡기고 자신은 미국에 돌아가 1949년 9월 1일까지 주간지 「크리스천 스탠다드」(Christian Standard)와 함께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이란 캠페인을 펼쳐서 50,000달러 기금조성에 힘을 계획하였다. 〈한국인 전령, KM〉 1949년 3월호에서 채이스의 부인 와네타(Wahnetta) 선교사는 채이스는 1949년 3월 1일 이후에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할 것이고, 몇 개월 더 모금운동에 전념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채이스는 1948년 10월에 한국으로 떠날 때 7년간 섬겼던 잉글우드 하이츠 그리스도의교회를 8월 말에 사임하고 떠난 것으로 보아 1949년 중에는 가족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힐도 채이스 가족이 9월에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썼다〈“Overcoming Obstacles in Korea,” KM, 1949년 7월호〉. 그러나 채이스 가족은 예정했던 기간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해 10월 9일을 “Chapels for Korea” Day(주일)로 정했는데, 그 이유는 채이스 가족이 한국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탄 날이 1936년 10월 11일이었기 때문이다〈CS, 8 October 1949: 650〉. 그러나 이때까지 모금된 총액이 2만 달러에 그쳤다. 이 2만 달러 모금을 위해서 채이스는 150개 교회, 6개 대학, 4개의 캠프집회, 2개의 미션스쿨, 5개의 컨벤션에서 설교하였고, 개인들과도 접촉하였다〈“Missionary Visits 150 Churches to Present Korean Work,” CS, 22 October 1949: 678〉. 그리고 목표한 모금액이 달성된 것은 6·25동란이 터진 직후인 1950년 7월이었다. 모금된 돈은 총 5만 62달러 90센트였다〈“Proposed Goal Reached in ‘Chapels for Korea’ Campaign,” CS, 8 July 1950: 420〉. 이 기금은 전후 군대지원 프로그램(Armed Services Aid Program)에 3천 달러가 사용되었고, 일본으로 피신한 힐 가족과 폴 잉그램 가족의 거주지를 구입하는데 일시 사용되었다가〈“Chapels to Be Built in Korea,” CS, 27 March 1954: 201〉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에게 모두 이양되었다〈“John Chase Turns Over Funds, Endorses Taylor Family for Korea,” CS, 26 November 1955: 763; “Final Report on ‘Chapels Fund’,” CS, 28 January 1956: 60〉. 채이스는 자신의 뜻에 반하여 모금이 늦어져 6·25동란 이전에 이 기금이 쓰이지 않게 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다. 만일 채이스가 그 돈을 자신이 계획했던 시기에 교회건축에 사용했다라면, 교회들이 전쟁 중에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이고, 그 돈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이다〈Harold Taylor,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CK, 1959년 10월호〉.

3) 존 T. 채이스 선교사와 요츠야 선교부 및 기독교교회(基督の教會)의 사역자들과의 관계

존 채이스 선교사는 W. D. 커닝햄(Cunningham)의 도쿄 요츠야선교부가 1924년 이후 한국에서 펼친 사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본인이 요츠야선교부에서 1927년 3월 4일부터〈TC, 1927년 4월호〉 1934년 11월까지 요츠야선교부에서 7년 8개월간이나

사역하였고, 1931년 9월경에는 서울에 1개의 교회와 여러 개의 일요(주일)학교들(Bible Schools)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간 바가 있기 때문이다<TC, 1931년 11월호>. 또 채이스가 한국에 주재선교사로 왔을 무렵에 요츠야선교부의 ‘조선선교회 기독교회’에 소속된 교회들이 제물포에 3개, 서울에 3개, 평북 구성군과 정주군에 5개, 마산에 1개, 총 12개가 있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채이스는 1936년 10월까지 “한국에는 선교사 가족도 없고, 설교 사역자 양성소도 없고, 내국인의 교회도 없고, 내국인 전도자도 없고, 선교소식지도 없었다”(No Missionary Family in Korea; No Preacher Training School; No Native Congregation; No Native Evangelist; No Missionary Paper)고 적었다. 그러나 1937년 10월 현재는 선교사 한 가족이 서울에 상주하고 있고, 한국인성경훈련원(The 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이 제2학기 과정을 진행 중이며, 신당정기독교회와 두 명의 전도자들과 다수가 훈련을 받고 있고, <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이 2,250부씩 격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KM, 1937년 10월호>. 이 보도는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커닝햄(요츠야선교부) 선교사의 한국사역에 대해서 열광한 사실로 미뤄볼 때, 채이스 선교사가 미국에 거짓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이인범이 포교책임자로 있는 12개나 되는 한국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을 신약성경교회로 인정하지 않으려했기 때문이다.

채이스는 요츠야선교부의 ‘조선선교회 기독교회’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한국인 사역자들과 교제가 전혀 없었다. 그렇게 된 데에는 필시 채이스가 그들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포교관리자였던 이인범이 그들을 막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채이스 선교사로서는,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크게 환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채이스는 미국의 그리스도의교회들(Churches of Christ, 아카펠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 동석기 목사(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Garrett Biblical Institute, Cincinnati Bible Seminary 졸업)와 강명석 목사(일본 關西學院,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Freed-Hardman College 졸업) 및 요츠야선교부에 소속된 토마스 히치(Thomas G. Hitch) 선교사와 이인범 목사를 간략히 소개할 때에 그 누구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채이스는 강명석 목사를 신당정기독교회 1주년 기념예배에 초청하여 설교를 들었고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 성낙소 목사도 강명석 목사와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 채이스는 토마스 히치와 사이가 좋았고, 히치가 한국에 올 때마다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히치의 빈자리를 채운 오웬 스틸(Owen Still)과는 존슨대학교 학부와 신시내티성경대학원의 동문이었으므로 더더욱 관계가 좋았다. 이뿐 아니라, 채이스는 커닝햄의 요츠야선교부에서 1934년에 함께 사임한 후 일본에 남아 독립 선교사로 사역한 뻬햄(Farnham)과 루스 슈노버(Ruth Schoonover) 및 오사카성경대학에서 사역한 해롤드 콜(Harold Cole) 가족 등과도 긴밀하게 교제하였다.

4)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은퇴 후 생활

채이스가 한국선교에서 완전히 손을 떼 시점은 1956년 1월 3일이었다. 채이스는 1947년경에 시작한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 짓기 위한 캠페인으로 조성된 기금의 잔액 전부를, 이날 오클라호마 주 마이애미의 제일 그리스도(인)의교회에 보냈다("Final Report on 'Chapels Fund,'" CS, 28 January 1956: 60). 그리고 이 기금은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교회들의 건축과 수리와 보수를 위해서 사용되었다.

채이스는 목회에도 성공적이어서 1951년부터 1968년까지 17년간 시무한 캘리포니아 주 도우니의 제일 그리스도(인)의교회를 대형교회로 성장시켰다. 채이스는 은퇴 후 필리핀 세부(Cebu)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고, 전미선교대회(National Missionary Convention)의 창립멤버와 대회장직을 역임하였다. 그는 또 교회연금제도(Church Development Fund)의 창립이사였고, 산호세성경대학(현 William Jessup University)의 이사였으며, 북미주 그리스도인 대회(North American Christian Convention, NACC)의 유지회원이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1982년 NACC로부터 ‘올해의 목회자’(Churchman of the Year) 상과 1984년 신시내티기독교대학교 및 성경대학원에서 ‘저명한 동문’ 상(Distinguished Alumni)을 수상하였으며, 도우니(Downey)와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의 시의원직에도 당선되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자, 신약성경교회의 참 선교사였던 채이스는 1987년 12월 23일 캘리포니아 주 로디(Lodi)에서 82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별세하였다.



존 T. 채이스 부부의 무덤(Poplar Ridge cemetery) Piney Flats Sullivan county Tennessee, USA

채이스의 부인 와네타 스미스는 만 100세로 2002년 7월 18일 잠자던 중에 별세하였다. 그녀는 1901년 10월 28일 테네시 주 포플러 릿지의 존과 미니 스미스의 14자녀들 가운데 12번째로 태어났다. 와네타는 신시내티성경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를 받고 졸업하였으며,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존 T. 채이스와 결혼하였다(2002년 7월 23일(화)자 Lodi News-Sentinel: 8의 부고기사).

5) 조선‘기독교회’를 위해 헌신한 기독교회선교부 소속 선교사들

(1) 셸리 Shelley, J. Michael 1890.6.7.-?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목사, 선교사.

미국 오리건 주 유진(Eugene)에서 출생하였다. 유진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1923년 8월 12일 오리건 주 암힐(Yamhil)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암힐시 그리스도의교회 목사로 임명되었다. 한국 입국 수년 전부터 선교사가 되는 것을 꿈꾸어왔으며, 요츠야선교부의 열렬한 후원자로 또 실행위원회의 위원으로 봉사하였다. 셸리 가족은 1934년 요



J. 마이클 쉘리(J. Michael Shelley) 선교사 가족 (1935.02.24). 한국기독교회 선교를 위해 자원한 선교사로서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도쿄 요츠야선교부의 후원자였고 실행위원의 한 사람이었다.

츠야선교부의 한국 선교사 모집에 지원하여, 그해 1월 16일부터 한국 입국 준비를 하였다. 한국 선교지에서 쉘리와 요츠야선교부는 사역에서는 협력하지만, 재정에서는 분리하여 운영하기로 하여, 쉘리는 독립선교사의 신분으로 (당시는 세계공황 직후로 모금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스스로 선교기금을 모금해야 했다. 쉘리 부부와 딸 라헬(Rachell)은 1935년 2월 21일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가는 도중, 3월 10일 일본에 들러 1주간 윌리엄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의 집에 머무르며, 요츠야선교부의 선교활동을 견학하였다. 선교부 3개 교회(일본인 교회 2개, 한국인 교회 1개)를 방문하고, 2개 교회에서 설교하였다. 선교부의 월요일 목회자 모임에 2회 참석하고, 커닝햄 부인(Emily Boyd Cunningham)이 지도하는 2개 성경반에 참석하였다. 요츠야선교부의 사역 모습들, 특히 젊은 설교자를 훈련하는 사역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쉘리 가족은 3월 20일경 한국에 도착하여 24일 이인범 목사와 함께 제물포 제1교회(송현기독교교회)의 방문을 시작으로, 요츠야선교부가 한국에 세운 교회들을 둘러보았다. 이 때 김영배 전도자가 쉘리의 통역을 맡았다. 한국 교회를 시찰하기 위해 방문한 윌리엄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이 4월 14일 쉘리 가족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고, 1-2달 안에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했다. 쉘리는 4월 25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교파명 '기독교회'를 신고하고, 요츠야선교부와는 별도로 서울에 선교부를 설립하고, 성경공부반을 시작하고, 성경공부에 참여한 3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또 북한지역에서 약 2개월 사역하였다. 쉘리 가족은 교파주의를 거부하고 신약성경기독교(New Testament Christianity)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였지만, 두 가지 중대한 이유로 한국 체류 7개월만인 1935년 10월 28일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다. 첫째 이유는 가족의 건강문제로 쉘리는 폐병에 걸리고 딸은 혈우병을 앓았다. 둘째 이유는 커닝햄의 지도부 아래 자행된 부정직과 비기독교적 행위들로 인해, 쉘리가 요츠야선교부와 동역하지 못하고 분리되자, 미국의 후원자들 사이에 오해가 생겼다. 쉘리는 비록 한국에 오래 남아서 사역하지 못하였지만, 존 T. 채이스(John T. Chase)가 한국에 나가 사역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도움을 주었다. 첫째는 채이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이 무렵 채이스는 커닝햄과 빛은 같등으로 인해서 요츠야선교부에서 해고당하여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둘 사이의 논쟁이 미국 본토에서까지 달아오르던 때였다. 쉘리는 본국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여러 날을 서울과 도쿄에서 증거자료 수집에 매달렸고, 수집된 자료들을 문서형태로 미국에 가져가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커닝햄이 채이스의 이력에 깔아놓은 먹구름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둘째, 자신을

돕던 후원자들에게 채이스를 돕도록 부탁하였다. 가족으로는 부인 마르다(Martha Shelley)와 딸 라헬(Rachell)이 있었다.

[참고문헌] “Yotsuya Mission Executive Committee”, *TC* vol.XXXVIII no.3, Jan. 1934; “Recruits for Korea”, *TC* vol. XXXIII no. 5, Mar. 1934; “About People”, *TC* vol.XXXIV no.6, Apr. 1935; “Entering Korea”, *TC* vol. XXIV no.7, May 1935; “A Visit to Korea”, *TC* vol. XXXIV no. 8, Jun. 1935; “About People”, *TC* vol. XXXV no. 3, Jan. 1936; “John T. Chase to Evangelize in Korea”, *CS* 29 Feb. 1936; “The Chases Will Go to Korea”, *CS* 28 March 1936;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초기 역사-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1864~1936』, 한성신학교, 1991; 백종구,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 쿰란, 2018; 조동호,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CS: Christian Standard

TC: Tokyo Christian

백종구(전 서울기독교대학교 교수)

(2) 채이스 Chase, John Trawick 1905.9.17.-1987.12.23.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목사, 선교사.



존 채이스(John T. and Wahneta Smith Chase) 부부

채이스는 미국 켄터키 주 루이빌(Louisville)에서 로완 F. 채이스(Rowan F. Chase)와 헬렌 R. 채이스(Helen Roberts Chase)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5살에 고아가 되어, 인디애나 주 체스터필드(Chesterfield)에 거주하는 감리교인 고모와 함께 살았다. 성년이 되기 전 그리스도의교회들 전도자 조지 윈프리(George Winfree)와 이스트린(East Lynn)그리스도의교회 목사 헨리 우드(Henry Wood)로부터 신앙적 영향을 받았다. 1926년 존슨성경아카데미(Johnson Bible Academy, 후에 존슨성경대학)과 신시내티성경신학교(Cincinnati Bible Seminary)를 졸업하였다. 졸업 직후 루이지애나 주 배턴루지(Baton Rouge)에 내려가 목회를 시작하고, 동년 7월 자신보다 1년 먼저 성경신학교를 졸업한 와네타 I. 스미스(Wahneta Irene Smith)와 결혼하였다. 목회하던 중 성경신학교와 도쿄(東京) 요츠야(四谷)선교부 윌리엄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의 초청으로 일본 선교를 결정하였다. 채이스 부부는 1927년 도쿄로 건너가 요츠야선교부에서 월급 선교사로 사역하였다. 1930년 6월 커닝햄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요츠야선교부를 맡아 월간 선교소식지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을 편집하고, 선교부 교회들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설교하였다. 일본 사역에서 채이스는 특별히 한국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 요츠야선교부가 도쿄와 요코하마(横浜)에 세운 한국인 교회들을 도왔고, 구세군 사관 출신 성낙소 목사가 사역한 요코하마 한국인 교회를 감독하였다. 요츠야선교부가 1924년부터 시작한 한국 선교 상황을 잘 알았고, 1931년 9월 하순 한국 선교 사역을 시찰하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었다. 이런 연유로 일본에서 7년 8개월 동안 사역한 후, 1934년 11월 미국으로 돌아간 채이스는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첫 내한 독립선교사 J.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의 후임자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채이스는 미국에서 섬기던 캘리포니아 주 잉글우드하이츠(Inglewood Heights)그리스도의교회를 1936년 3월 사임하고, 선교기금 모금에 돌입하여, 10월 1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가족이 한국행 배에 승선하였다. 채이스 가족은 1936년 11월 7일 서울에 도착하고, 크리스마스 직전 서대문구 송월동 영국해외성서공회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였다. 채이스는 일본에서의 선교 경험으로 입국 전 이미 커닝햄과 같은 선교방법(독립선교)과 선교정책(자립형 토착교회 설립을 목표로 본토인 설교자를 훈련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1936년 가을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로 알려진 사역을 시작하고, 선교부 본부를 임대한 영국해외성서공회 건물로 정했다. 그리고 사역의 범위를, 당분간 사역 인력이 증가할 때까지, 서울로 제한시켰다. 1937년 초 선교부 본부 건물에서 1명으로 시작한 성경공부반(이후 성경훈련원으로 개칭)은 시간이 가면서, 학생이 증가하고, 교육도 체계를 갖추어 갔다. 성경훈련원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추구하는 신약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한국 목회자가 거쳐야 할 필수 코스였다. 타교단 출신 교인이나 목회자는 일정 기간 성경훈련원의 교육을 받아야 했다. 채이스는 1937년 5월 선임 선교사 셸리가 조선총독부로부터 허가받은 교파명 ‘기독교회’를 인계받았다. 또 1939년 초 영국해외성서공회로부터 송월동 선교부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매입액의 10%를 지불하고, 잔금은 1940년 5월 말 안식년으로 미국에 돌아가, 건축기금을 모금하여 처리하였다. 선교사를 동원하는 일에도 시간을 내어, 1936년 봄 존슨성경대학(Johnson Bible College)을 방문하여 존 J. 힐(John J. Hill)을 한국 선교사로 동원하는 데 성공했다. 힐은 갓 결혼한 신부 에스더 비반즈(Esther Beavans)와 함께 1939년 6월 21일 입국하여 기독교회선교부에서 채이스와 공동사역을 시작하였다. 채이스가 안식년으로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힐이 기독교회선교부의 사역을 맡아 잘 관리하였지만, 성경훈련원은 일본 경찰에 의해 폐쇄되었다. 1940년 후반 일제의 기독교 탄압이 심해지면서, 미국 정부는 자국민의 철수를 권고했고, 힐 부부는 1940년 11월 16일 인천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채이스는 미국에서 가끔 한국 교회의 소식을 들었지만, 교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1941년 2월 24일 서울에 도착하여 선교부 교회들을 차례대로 방문하여, 위로하고 권면하였다. 그러나, 선교사를 스파이로 의심하는 당국과 일본 형사들의 감시 때문에, 체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서울에서 1달을 머문 후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즈음 한국 교회들은 일제의 요구(신사참배, 동방요배, 일본기독교조선교단 가입 등)에 불응한 까닭에 폐쇄조치를 당하였고, 선

교부 건물은 일제가 몰수하여 한국인에게 매각하였다. 서울 방문 후 채이스는 잉글우드 하이츠그리스도의교회로 돌아가 목회사역을 재개하고, 퍼시픽성경신학교(Pacific Bible Seminary)에서 강의하고, 미국 교회들을 순방하며 한국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강연도 하며 기금을 모금하였다. 1945년 8월 해방 후, 채이스는 바로 한국 입국을 원하였으나, 정세의 불안정으로, 1947년 초에 겨우 비자를 받아 1월 중순경 입국하였다. 서울에서 머무는 동안 선교부 건물의 회수에 노력을 기울였고 또 선교부 교회들을 방문하여 사역자들과 교인들을 격려하며, 매주 힘닿는 대로 생필품을 공급해 주었다. 전쟁 전 선교부 6개 교회들 중 살아남은 교회는 2개 교회(돈암동교회와 필운동교회)뿐이었다. 채이스는 전후 한국은 복음이 가장 필요한 선교지라고 확신하여, 선교의 범위를 서울 밖으로 확장하고, 전 한국인을 전도의 대상으로 하는 한국복음화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채이스는 1달 반가량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1947년 3월 1일 인천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채이스는 10월 17일에, 힐은 가족과 함께 1949년 2월 18일에 서울로 돌아왔다. 채이스는 이번 한국 방문 때 한국복음화프로그램을 구체화 시켜, 본토인 설교자 훈련·복음전도관 설립·훌륭한 예배당 마련을 목표로 세우고, “[선교사] 설교자” 동원과 “1949년 9월 1일까지 50,000달러 특별기금” 모금을 긴급 사안으로 정했다. 채이스는 성경훈련원을 힐에게 맡기고, 자신은 미국으로 돌아가 「크리스천 스탠다드」(Christian Standard)와 함께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 캠페인을 펼쳤다. 목표액 50,000달러가 모금되면, 채이스 가족은 1949년 9월에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채이스가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힐은 성경훈련원을 한국성서신학교(Korea Bible Seminary)로 개칭하여 재개하였다. 힐이 한국에서 기독교회선교부의 사역을 수행하고, 채이스가 미국에서 한국 예배당 기금의 목표액을 거의 달성할 무렵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힐은 부인과 함께 일본으로 피난하고, 채이스는, 예배당 기금 목표액을 1950년 7월에 달성했으나, 전쟁 때문에 한국 입국을 연기하고, 당분간 캘리포니아 주 도우니(Dawney)제일그리스도의교회에서 사역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전쟁은 재산과 인명에 많은 피해를 주어, 1952년 초까지 남한 인구의 절반이 구호를 필요로 하였다. 채이스는 한국인을 위한 구호사업으로 「크리스천 스탠다드」를 통해 구호품과 구호기금을 호소하고, 확보된 구호품을 한국으로 보냈다. 그러나 1954년 9월 하순, 채이스는 동료 선교사 힐의 가정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한국 사역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한국 선교 외에 채이스는 캘리포니아 주 도우니제일그리스도의교회에서 17년간(1951년부터 1968년까지) 시무하고, 은퇴 후 필리핀 세부(Cebu)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전미선교대회(NMC)의 창립멤버와 대회장직을 역임하였다. 또 교회연금제도의 창립이사, 산호세 성경대학(현 William Jessup University)의 이사, 북미주그리스도인대회(NACC)의 유지회원이었다. 채이스는 1987년 12월 23일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실마(Sylmar, Los Angeles County)에서 별세하였다. 유해는 미국 테네시 주 설리번 카운티, 파이니 플래츠(Piney Flats, Sullivan County)의 포플러 릿지 묘지공원(Poplar Ridge Cemetery)에 안장되었다. 부인 와네타 아이린 스미스 채이스(Wahneta Irene Smith Chase, 1901.10.28.-2002.07.18)는 미국

초기 환원운동가 라쿤 존 스미스(Raccon John Smith, 1784-1868)의 후손으로, 결혼 후 약 60년 동안 채이스의 든든한 동역자이자 후원자였다. 별세 후 유해는 채이스의 묘지에 합장되었다. 자녀로는 케넷 (Kenneth Chase, 1927년 7월 18일, 일본 출생), 로버트(Robert Chase, 1930년 5월 5일, Tokyo, 일본 출생), 나딘(Nadine Chase, 1933년 3월 15일, 미국 출생), 로이스(Loise Chase, 1938년 1월 28일, 한국 출생)가 있었다. 2002년 10월 30일 서울기독교대학교 구내에 채이스기념관 건물이 설립되었다.

[주요저술] "Mr. And Mrs. Chase And The War Situation" (CS 4 Sep. 1937); "Missions In Korea" (CS 2 Apr. 1938); "What We See In Korea" (CS 30 Jul. 1938); "Korean Missionary's Furlough Travels" (CS 24 Aug. 1940); "Movements of the Missionaries" (CS 25 Jan. 1941); "The Situation In Korea" (CS 31 May 1941); "Why the Missionary Exodus?" (CS 14 Jun. 1941); "Missionaries and Missions" (CS 17 Oct. 1942); "Korea Must Be Freed" (CS 20 Feb. 1943); "Post-war Plans Outlined for Evangelism in Korea" (CS 17 Mar. 1945); "The Holy Spirit" (CS 7 Apr. 1945); "Spiritual Gifts in the Early Church" (CS 21 Apr. 1945); "Meaning of Holy Spirit Baptism" (CS 14 Apr. 1945); "Relationship of the Holy Spirit to the Christian" (CS 5 May 1945); "Men Ought to Pray" (CS 22 Dec. 1945); "Korea-"The Land of Morning Calm"" (CS 20 Apr. 1946); "The Korean Christian Mission(In Retrospect)" (KM May 1946); "Open Doors in Japan and Korea" (CS 15 Feb. 1947); "Wanted: Peace" (CS Jun. 1947); "On The Trail of The Missionary" (KM vol.VI no.11, Jul. 1947); "Christ, the Remedy for Oppression" (CS 17 Apr. 1948); Christ's Ambassadors on the Field" (CS 19 Jun. 1948); "A Proposal to Meet a Need" (CS 15 Apr. 1950); "Witnessing for Christ in Korea" (CS 10 Jun. 1950); "Korean War Brought On From Outside, Says Chase" (CS 22 Jul. 1950); "Missionary Problems and the New Testament Answer" (CS 16 Oct. 1954); "Peter's Broadening Ministry" (CS 5 Dec. 1959); "This Works Well for Us" (CS 14 Jul. 1962).

[참고문헌] CS Sep. 1932~Jul. 1962; TC Apr. 1927-Aug. 1933; KM 1937-1949;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CK Oct. 1959; Betty Dornette, "An Hour with John Chase", CS 20 Jan. 1985; Mark Maxey, "Christians in Japan 100 Years(1883-1983)", <http://www.bible101.org/japanmissions/page01.htm>; Mrs. W. D. Cunningham and Mrs. Owen Still, *The Flaming Torch: The Life Story of W. D. Cunningham*, Tokyo: The Yotsuya Mission, 1939;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CK Oct. 1959; <https://www.findagrave.com/memorial/89811653/john-trawick-chase>;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역사』, 한성신학교, 1991; 백종구, "윌리엄 D. 커닝햄과 한

국인 선교-동경 요시야선교회를 중심으로”, 「신학논총」 (2012); 백종구 “도쿄 요츠야 선교회와 재일 한국인교회: 미카와시마(三河島)한국기독교회의 개척과 성장 (1901-1947)”, 「한국교회사학회지」 53(2019); 백종구,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 쿤란, 2018; 오수강, 『基督의 敎會와 성낙소와의 관계』, 쿤란, 2007; 조동호,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CS: Christian Standard

NMC: National Missionary Convention

NACC: North American Christian Convention

TC: Tokyo Christian

KM: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

FCK: For Christ in Korea

백종구(전 서울기독교대학교 교수)